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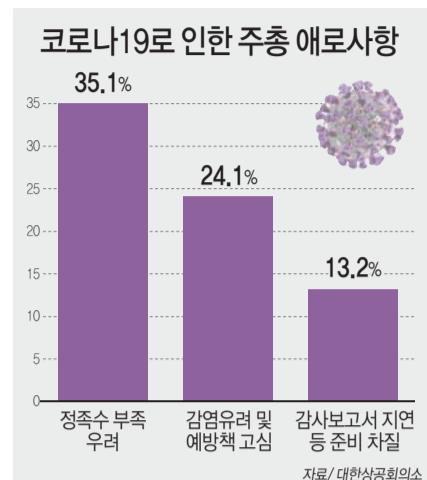
정족수 채우기 힘든 데, 감염우려까지… 주총 ‘노이로제’

대한상의 주주총회 기업애로 조사
기업, 코로나에 신설규제 ‘이중고’
10곳 중 3곳 “정족수 부족” 우려

감사인 지정제 등 신설규제 부담
“지정감사 강화되고 감사 비용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둔 국내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주총 참석률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외이사 연임제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 올해부터 시행되는 규제 역시 기업에 부담 요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1일 내놓은 ‘2020년 주주총회 주요현안과 기업애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정족수 부족(35.1%)과 감염우려 및 예방책 고심(24.1%), 감사보고서 지역 등 준비 차질(13.2%) 등의 애로를 겪고 있다. 이번 조사는 올해 정기주총 개최하는 상장사 302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정족수 문제는 2017년 새도보팅(의 결권 대리 행사) 폐지 이후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정족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은 ‘새도보팅 부활’(52.6%), ‘의결요건(총 주식수의 4분의 1) 완화’(29.8%) ‘전자투표제 도입·활용 확대’(13.0%) 등을 제시했다.

신현한 연세대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면 정족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개별 소액주주 입장에서 기업 보고서만 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반복되는 정족수 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주총장 감염우려와 관련해 기업들은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고 마스크·장갑 착용 의무화 등 방역 조치를 할 예정이

다. 또 외부 참석자가 많은 주총의 특성을 고려해 주총 장소를 회사 외부로 변경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율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사외이사 연임제한 등 올해부터 시행되는 규제로 불편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으로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은 기업 중 26.3%는 새 외부감사인의 회사 파악 미흡, 과거 문제없던 사항의 엄격한 심사 등으로 애로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외부감사 비용도 예년보다 ‘증가’했다는 응답이 66.2%로 ‘비슷’(30.8%), ‘감소’(0.7%)보다 많았다.

또 사외이사 연임제한 신설에 따라 이번에 사외이사를 교체해야 하는 기업 중 24.4%는 제한된 인력풀과 시간 부족 등으로 사외이사 후보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이번 정기주총의 최대 쟁점 사항으로 ‘이사·감사 등 임원 선임’(62.9%)을 꼽았고, ‘배당확대 요구’(7.0%), ‘사업 확장 여부와 전략 등’(3.0%)이 그 뒤를 이었다. 사외이사의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은 정기주총이 얼마 남지 않은 올해 1월에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됐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현재 정기주총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코로나19 방역대책과 차질없는 주총 개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하는 상황”이라며 “주총 준비과정에서의 기업애로를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지원 방안을 전국의 회원기업에게 알리는 등 안전하고 원활한 주총 개최를 위해 상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CEO 선임 등 안건 산적… 이통3사, 주총 예정대로 진행

SKT 26일, KT 30일 주총 개최
전자투표제 활용해 출석 최소화
LGU+ 주총장 방역·예방에 총력



서울 종로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뉴스스

린다는 계획이다.

가장 먼저 주총에 나서는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 3사 중 유일하게 전자투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대신 총회장 입구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발열이 의심되는 경우 출입을 제한 토록 하고, 손소독제와 마스크도 구비할 예정이다.

이동통신 3사는 이달 주총을 통해 최고경영자(CEO)를 선임하고, 미래사업 방향을 구체화해 각 사 역량을 끌어올

LG유플러스는 이날 주총에서 이재호 코웨이 부사장(CFO)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할 예정이다. 또 물적분할을 통해 전자결제 관련 사업 ‘토스페이먼츠’를 설립한다.

오는 26일 서울 종로구 을지로 T타워에서 주총을 여는 SK텔레콤은 2018년 이동통신 3사 중 처음으로 전자투표제를

이미 도입한 바 있다. 올해도 전자투표를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고, 박정호 사장 재선임과 신규 이사 선임 등 총 7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30일 서울 서초구 태봉로 KT연구개발센터 강당서 주총이 예정된 KT는 올해부터 처음 전자투표제를 도입한다고 전날 밝혔다. 전자투표는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총 10일간 오픈된다.

KT 측은 “최근 코로나19로 대면 접촉 자체가 요구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전자투표제는 주주의 의사 표현에 유용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KT는 이번 주총에서 구현모 CEO 내정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을 교체하는 등 8개 안건이 상정됐다. 총 11명의 이사 중 7명을 교체하며, 구현모 대표 시대를 개막하는 셈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SK텔링크-하나은행
알뜰폰 전용요금제 8종

SK텔링크는 자사 알뜰폰 서비스 ‘SK 세븐모바일’이 하나은행과 손잡고 금융과 통신 서비스를 결합한 ‘하나원큐’ 제휴 요금제 8종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하나원큐’ 제휴요금제는 알뜰폰 고객들이 하나은행 금융 서비스 이용 시 통신요금 할인 혜택뿐 아니라 저렴하게 ‘웨이브’와 ‘플로’ 등의 미디어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하나은행 계좌로 급여 및 4대 연금 자동이체 시 월 2200원에, 모바일뱅킹 앱인 ‘하나원큐’로 월 1건 이상 이체 시 월 1100원, 주택청약 신규발급 및 월 납입 등의 금융 제휴 서비스 이용 시 월 1100원 등 월 최대 4400원의 통신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금융 할인을 적용하면, ‘하나원큐 100GB 플러스’ 요금제는 부가세 포함 월 4만 700원에 데이터 100GB 및 음성·문자 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대우조선해양, 3년 연속 흑자 달성 성공

작년 매출 8.3조, 영업익 2928억
부채비율 210%서 200%로 줄어

대우조선해양이 3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에 성공했다. 다만 충당금 설정 등의 이유로 순이익은 적자로 전환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이 8조3587억원, 영업이익 29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3.3%, 71.4% 감소했다. 부채비율도 2018년 210%에서 200%로 낮아졌다. 작년 부채는 2511억원 규모의 차입금 등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5571억원이 줄었다.

회사 측은 “지난해 수주 부진에 따른 고정비 부담분 증가에 대한 충당금 설정 등으로 이익률이 감소했다”면서도 “글로벌 선박 발주 감소, 선가 회복 지연 등 대내외 업계 현실을 감안하면 지난해 실적은 상대적으로 선방했다”고

설명했다.

또 2018년말 대비 2511억원 규모의 차입금 감소 포함 전체 부채가 5571억 원이 감소해 부채비율도 2018년말 210%에서 200%로 낮아져 전반적인 재무 상황도 개선됐다. 작년 순손실에 대해서는 “지난달 1심 판결이 난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의 결과”라면서 “현재 진행중인 나머지 소송에 대해 추가로 충당금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대내외 경기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등 당분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LNG운반선, 초대형원유운반선 등 기존 주력 선종 외에도 초대형LPG운반선, 셔틀 텁커 등 다양한 선종의 수주와 극한의 원가절감활동으로 실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네이버 D2SF, 3개 기술 스타트업에 투자

네이버의 기업형 액셀러레이터 D2스타트업 팩토리(D2SF)가 데이터, 모빌리티, 에듀테크 분야의 스타트업 세 곳에 각각 투자했다.

투자 대상이 된 스타트업들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별 비교분석 데이터를 구축한 마이프랜차이즈 ▲출퇴근에 특화된 공유셔틀 모빌리티 스타트업 모두의 셔틀 ▲키즈타깃의 인터랙티브 콘텐츠 개발사 앤비져블이다.

マイ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체 플랫폼을 구축해 예비 창업자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브랜드별 비교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베타서비스 중이며, 향후 최적의 브랜드 추천 및 상담, 가맹 계약까지 원스톱으로 구현할 계획이다.

모두의 셔틀은 이용자 수요에 맞춰 출퇴근 경로를 설계해 전세버스를 매칭하는 공유 셔틀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대

중교통이나 자차 출퇴근이 어려운 이용자, 신규 수의 창출을 기대하는 전세버스 사업자 모두에게 호응을 얻으며, 공유 모빌리티 산업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네이버는 데이터 활용 관점에서 많은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DSC인베스트먼트, 슈미트, L&S 벤처캐피탈이 공동 투자했다.

에듀테크 스타트업 앤비져블은 증강 현실(AR), 컴퓨터비전 등의 기술을 활용해 유아동의 신체·정서 발달을 돋는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했다. 매월 신규 콘텐츠를 선보일 만큼 인터랙티브 콘텐츠 제작 역량이 뛰어난 팀으로, 최근에는 STEAM(교육용 과학·기술·공학·예술·수학 기반의 융합교육) 험스쿨링 키트, ‘나노클래스’를 출시했다. 주니버와도 공동 서비스를 기획 중이며, 협력 기회를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퓨처플레이

CFO에 네이버 출신 선임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기업 퓨처플레이가 최고재무책임자(CFO)로 네이버 재무 리더 출신인 오형재 CFO(사진)를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오형재 CFO는 앞으로 재무 건전성 강화, 중장기 전략 수립, 신사업 부문 지원, 기업설명회(IR) 등을 맡게 된다.

오형재 CFO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네이버 경영기획팀에 입사해 회계, 세무, 경영관리, 투자 관리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다. 또 네이버 그룹의 경영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네이버 I&S 재무 리더와 중국법인의 재무 실장을 역임하는 등 글로벌 역량을 갖추왔다.

/체윤정 AI 전문기자 echo@